

이재명 “광주 붕괴사고, 고질적 부실시공 또 드러내”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경기도 사전단속제 전국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정책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경험했던 건설업계 비리를 예로 들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면서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러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며,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또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역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단속제’를 소개하며,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입금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9월 입찰 참가율이 사전 단속 도입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19.2% 감소하여 그만큼 건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속초 조양감리교회 예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남북 간의 금강산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며 북한 측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요인이 될 것 같다”면서 “이건 제도와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전국투어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전국투어에서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이재명 선대위 광주·전남 특보단 출범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전국 순회 지역특보단·청년특보단 임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특보단이 전국을 돌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력 확대에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15일과 16일 이틀 간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해 각 지역별 특보단 출범식을 가졌다. 정 단장은 조오섭 총괄특보단 상임부단장, 김영

진 특보단 총괄상근 부단장, 전용기 청년특보단장 등과 함께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그리고 16일에는 광주시당에서 특보단과 청년특보단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임명된 특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년특보단은 별도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정성호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와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검정고시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이 후보의 인생 역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멤버인 ‘7인회’의 최장인

정 단장은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 34년 동안 정치행보를 같이 해온 최측근이다.

정 단장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도와 김영진·김병욱 의원과 함께 원조 이재명계, 이른바 ‘이재명의 3인회’로 불렸다. 이번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전국에서 민심다지기에 앞장서는 등 핵심 역할을 해왔고, 현재 선대위에서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정 단장은 전국을 돌며 특보단을 조직하고 중도층 지지확장 활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문 대통령 출국...UAE와 수소협력 논의

사우디·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이 16일 첫 목적지인 UAE 실무방문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필두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면담 등의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할 계획이며 아울러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미 UAE와 천공-II(중거리지대공기사일-M-SAM)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8일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제와의 회담 및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한 다. 또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에

는 알텔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항에 환송 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상황을 잘 챙기라”고 지시하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을 맡고 있는 임 전 실장은 이전에도 UAE에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41.4%·이재명 36.2%·안철수 9.6%

KSOI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전주에 비해 이 후보는 소폭 내리고, 윤 후보는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주의 15%대에서 9%대로 떨어지며 주춤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1.4%포인트 하락한 36.2%를 나타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5.2%포인트다.

전주(1.7~8) 조사에서는 이 후보 37.6%, 윤 후보 35.2%를 기록했었다. KSOI 조사에서 윤 후보가 40%를 웃돈 것은 지난해 12월 10~11일 조사(42.0%) 이후 5주 만에 처음이다. 최근 상승세였

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전주(15.1%)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9.6%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6%,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는 0.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을 ‘정권심판론’(현 정권 국정운영 심판을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으로 보는 이들은 50.3%, ‘정권 재창출론’(안정적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으로 보는 응답자는 36.5%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100%로 응답률은 8.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